

海外業界動向

세계 전자디스플레이 시장 전망

일본 전자기계공업회(EIAJ)는 「전자디스플레이 산업의 2천년대 비전에 관한 조사연구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전자디스플레이의 세계시장은 현재의 약 2조엔에서 2,000년에는 4조엔을 넘는 규모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액정 디스플레이(LCD)는 현재의 4,000억엔에서 '95년에는 8,000억~9,000억엔 2천년에는 1조 5,000억~1조 9,000억엔을 점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LCD와 CRT,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등이 용도별로 어떻게 나뉘어져 가는지, 이를 위한 과제와 금후의 대응방안, 덤핑 등의 국제문제, 표준화, 환경문제 등 전자디스플레이 산업이 대응해 나가야할 과제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이번 조사연구는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발전을 이루고 있는 전자디스플레이 산업의 장래를 전망하고 전자디스플레이 업계의 지침으로 삼기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LCD, CRT,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EL 디스플레이, 형광표시관, LED 디스플레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가운데 수요자와 공급자에 대한 앙케이트 조사를 근거로, 전자 디스플레이 산업의 시장규모를 예측하고 있는데, '92년부터 2천년까지의 연평균 신장률은 공급 측면에서는 CRT가 4.2% 증가, LCD를 중심으로한 플랫 패널 디스플레이(FPD)는 20.7% 증가, 수요측면에서는 동 품목을 각각 1.9% 증가, 19.2% 증가로 예측하고 있다.

LCD의 수요예측에서는 연율 20% 이상의 신장이 가능하지만, 단 이 경우 10인치급의

액티브 액정판넬의 가격을 '95년에 6만엔으로 상정하였으므로, 10만엔으로 상정할 경우 신장률은 반감한다. 즉, 앞으로도 수요확대에 있어서는 가격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럽의 새로운 ISO인증 연합기구 설립

유럽의 6개 주요 국제인증기관은 최근 국제 품질보증규격 「ISO 9000」의 가치와 평가를 세계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독자적인 단체를 설립하는 협정을 안트워프에서 체결하였다.

새로운 단체의 명칭은 「독립국제인증기구」(IIOC)로 ABS Quality Evaluation Bureau Veritas Quality Int'l(BVQI), Det Norske Veritas Quality(DNV), Germanischer Lloyd Lolyd's Register Quality, SGS Int'l 6개 기관으로 이들 중 BVQI, DNV, Lolyd's Register는 일본에서도 ISO 9000 인증 사업을 행하고 있다. IIOC의 회원은 각각의 고객에 대해, 심사는 외주나 하청을 주지 않고 인정증을 발행하는 기관에 의해서만 실시된다고 하는 보증을 주는 것에 합의한 외에, 외주처 등 다른 인증기관에 의한 심사에 근거한 ISO 9000 인정서를 발행하지 않는 것도 확인하였다.

또 IIOC에서는 가맹기관이 세계의 네트워크를 통해, EC위원회, 각국정부, 인정기관, 상업단체라고 하는 영향력 있는 단체와의 대화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기로 하였다.

미국의 휴대형 컴퓨터 수요 전망

콤팩트 컴퓨터 후지쯔의 미주 자회사 FPS

Phoenix Technology 등 미국의 컴퓨터 하드와 소프트웨어 업계에 2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을 갖고 있으며, 모빌 컴퓨팅에서는 미국의 유력한 산업 분석가 중의 한사람인 데이터 퀘스트의 제리 패터 씨에 의하면 노트북 PC, 서브노트북 PC, PDA, 전자수첩을 포함한 미 포터블·컴퓨터시장은 금년의 580만대에서 내년에는 790만대, 이후 872만대, 1,107만대로 증가하고, '97년에는 1,400만대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97년까지의 예측은 상향조정의 가능성이 크며, 미국에서의 노트북 PC 시장이 당초의 전망 이상의 확대를 보일 공산이 크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PDA(데이터 퀘스트에서는 PCAC= Personal Communication Asstant라고 호칭)에서는 IBM, Apple, NEC, 도시바 등의 컴퓨터 업체와 마쓰시다전기, 소니, 카시오 계산기, 필립스 등의 가전업체에 더하여, AT & T 모토롤라, 맥코, 셀룰러 등 통신관련 기업이 참가하여, 큰 시장을 형성해 가고 있다고 말하고, 애플의 뉴턴과 카시오-탠디 진영의 "즈-마"의 시장투입으로, 금년에는 미국에서 70만대, '97년에는 300만대 이상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 세계의 노트북 PC 시장에서 '92년의 판매대 52만 8,000대를 기록한 도시바, 디자인 측면에서 뛰어난 IBM의 「심크 패트」 등이 주목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 전자산업의 매출 및 수주 동향

미국 전자공업협회(AEA)가 최근 발표한 미국의 전자기기 및 관련 서비스의 세계시장에 있어서의 '93년 제 1/4분기 수주 처 출하액비율(B/B Ratio)는 0.99로 전년동기대비 同率로 나타났다. 미국의 전자기기 및 관련서비스의 총매출은 전년동기대비 4.8% 증가한 814억弗, 수주액은 4.9% 증가한 804억弗이었으며, 3월의 매출은 360억弗, 수주액은 291억弗 이에

미국의 전자산업 매출 및 수주액('93. 1/4)

(단위: 10억弗, %)

구 분	매 출 액		수 주 액	
		증감률		증감률
컴퓨터 / 사무기기	21.0	8.2	21.0	11.7
통신기기	12.4	▲8.8	11.7	▲14.5
방위용통신기기	8.2	▲2.4	8.1	▲4.7
계측·제어기기	8.7	13.0	8.7	16.0
의료기기	9.3	12.0	9.1	13.8
가정용전자기기	2.9	0	2.4	11.1
전자부품	18.9	8.6	19.4	10.2
합 계	81.4	4.8	80.4	4.7

자료: 미국 상무부

대해 AEA에서는 전년동기대비 매출, 수주액 모두 선정하고 있으나, 성장률은 하락하였다. 이러한 장기 경기후퇴에서 탈출하는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으나, 세계시장에서의 미국 산업의 웨어가 과거 5년간 감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 통신공업협회, 제2 셀룰라 전화규격 방식 발표

미국통신공업협회(TIA)는 최근 디지털 셀룰라 전화방식에서 CDMA(부호분할 다중접속) 방식의 잠정표준규격서를 발표하였다. 이는 '90년의 TDMA(시분할 다중접속) 방식에 이어 제2의 규격발표가 되는데, 두방식 모두 셀룰라 업계의 단체인 셀룰라 통신협회(CTIA)의 요청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현행의 아날로그 방식과 비교해, 주파수의 비약적 용량확대를 실현할 수 있는 방식이다. CDMA는 아날로그 방식의 15배에서 20배, 한편 TDMA방식은 약 6배, 확장판 E-TDMA는 15의 용량을 갖는다. 잠정표준으로서 TDMA와 CDMA의 2개 방식이 병존하는 형태가 되는데, 기기 메이커와 국 오퍼레이터가 구체적인 설계를 통해, 디지털 방식을 더욱 현실적인 것으로 촉진시키려는 의도에서 작성되었다.

미국 IBM, 고속 정보통신시장에 참여

미국의 IBM은 최근 비동기 송신 모드(ATM) 기술을 사용해 고속 정보통신 분야에 본격 참여할 방침을 공표하였다.

IBM은 이 분야에서 각종 칩, 어댑터, 스위치 등 폭넓은 제품을 개발할 계획으로, 내년 중에는 최초의 제품이 시장에 나올 예정이다.

고속정보통신은 금후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로, 이들 제품의 시장규모는 금년에 2억 7,500만弗 추정에서 '97년에는 31억弗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모토롤라 2/4 분기 경영실적

미국 모토롤라의 금년 제2/4분기(4월~6월) 경영실적은 매출과 순이익에서 과거 최고를 기록하였다.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25% 증가한 39억 4,000만弗, 상반기 전체로는 22% 증가한 75억 6,000만弗로, 나타났으며 또 순이익은 제 2/4분기(4월~6월) 경영실적은 매출과 순이익에서 과거최고를 기록하였다.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25% 증가한 39억 4,000만弗, 상반기 전체로는 22% 증가한 75억 6,000만弗로 나타났으며 또, 순이익은 제 2/4분기 2억 2,400만弗로 전년동기 대비 5.2배, 상반기 전체로는 160% 증가한 4억 2,800만弗의 수익을 기록하였다.

부문별로는 반도체가 여전히 호조로 13억 9,000만의 매출로 연속 4년이상 매출 증가를 경선하고 있다. 반도체의 수주는 통신, 퍼스널 컴퓨터, 워크스테이션, 자동차 분야에서 2자리 증가를 기록하였으며, IBM과의 공동개발에 의한 RISC 프로세서 「파워 PC」가 순조로운 스타트를 보이고 있다.

셀룰라 전화단말기를 포함한 일반 시스템 부문도 전년동기대비 40% 증가한 11억 8,000만弗의 매출을 올렸으며, 수주도 58% 늘어났

다.

지상 이동체 통신기기(LMPS), 무선호출, 무선 데이터전송 등의 각 사업을 포함하는 통신기기 부문도 11억 3,000만弗의 매출을 기록하였으며 수주도 22% 신장하였다.

한편, 글로벌 통신 시스템 「이리덤」의 개발 코스트 상승으로, 영업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정부용 시스템·기술부문의 매출은 2% 상승, 수주는 4% 감소하였다.

프랑스의 BULL, 미국에서 PC 사업 재건

프랑스의 BULL은, 미국 자회사 제니스 데이터시스템(ZDS)를 통해 팩커드 벨과 광범위한 전략적 제휴를 맺고 ZDS는 금년도 핀란드의 Nokia의 사장을 同社 사장으로 초빙해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였다. ZDS와 팩커드 벨과의 제휴에서는 ① 탁상형 퍼스널 컴퓨터를 공동으로 설계·제조하고 ② ZDS는 팩커드벨에 대해 노트북 PC 및 서브 노트북 PC를 OEM 하며 ③ BULL은 팩커드 벨에 대해 19.9%의 자율참여를 행하고, 팩커드의 사장으로 대표를 파견한다는 3가지가 골자이다.

팩커드 벨과의 제휴는 BULL에 있어 「수익 개선에 플러스가 되며, 기술력의 강화, PC부문의 매출확대, 각종 코스트의 삭감을 도모할 수 있다」(동사 회장)는 것으로, 탁상형 PC에 BULL과 ZDS 진영의 연구개발체제와 팩커드 벨의 고품질 및 양산효과가 높은 제조기술을 융합시킨다는 것이 BULL의 제휴 목적이다.

또 기술적으로는 자신이 있는 휴대형으로 팩커드 벨에 OEM 공급을 행하면서, 팩커드의 광범위한 판로를 활용하는 것으로 BULL은 미국에서의 노트북 PC에 대한 리더쉽을 확보해갈 생각이다. 누적적자로 고민하고 있는 BULL은 7월말까지 프랑스 정부로부터 최종적인 재건안 제출을 요구받고 있으며, 이번 팩커드 벨과의 제휴는 프랑스 정부도 이미 승인한 것으로, 이로써 BULL은 재건을 위한 활동

을 개시하게 될 것이다.

프랑스 텔레콤, 민영화 발표

한 소식통에 의하면, 프랑스 정부는 프랑스 텔레콤을 공공기관에서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또한 텔레콤의 5대 조합에 대해 ① 국가는 프랑스 텔레콤의 과반수 주식을 보유하며 ② 종업원의 신분보장을 현상태로 유지한다고 발표하였다.

현시점에서는 프랑스 텔레콤이 언제 주식회사로 바뀔 것인가, 그때 국가가 보유하게 될 자본금은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는 밝히지 않고 있으나, 정부로서는 금년중에는 무리를 하더라도 가급적 빠른 시기에 이 계획을 실현시킬 방침이다. 1998년 1월 1일부터 EC의 전화통신서비스 시장이 모두 자유화됨에 따라 프랑스 텔레콤은 새로운 경쟁상태와 대항해 가기 위해 그때까지 기동력과 자금력을 갖추어 놓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프랑스 텔레콤은 주식회사도 바뀜으로서 외국의 전기통신사업자와의 제휴작전을 전개해 갈 수 있게 되며, 「특히 독일의 DBP텔레콤과의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정부에서는 강조되고 있다.

독일의 해외투자/외국인 투자 동향

독일 정부가 최근 발표한 바에 의하면, 독일 기업에 의한 대외 순 직접투자액은 238억 7,000만 DM로 전년의 350억 5,000만 DM 대비 22% 감소하였고, 외국으로부터의 처 독일 투자액은 37억 9,000만 DM로 전년의 32억 1,000만 DM 대비 18% 증가하였다.

이것은 대외투자에서 EC 역내가 156억 5,000만 DM으로 전년대비 27% 감소한 것이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국가별로 보면, 독일으로부터의 투자액이 가장 많은 곳은 벨기에로 63억 DM, 이어 미국

26억 7,000만 DM, 영국 22억 DM의 순이다.

한편, 독일로의 외국인 투자는 EC 전체로부터가 32억 5,000만 DB로 전년대비 34%의 급증을 보였고, 국별로는 영국 12억 7,000만 DM, 프랑스 12억 5,000만 DM, 일본 9억 1,600만 DM의 순이었다.

일본의 냉장고 단열재 탈 프레온화

일본의 전자업계는 통산성의 보조금을 받아 냉장고 단열재의 탈 프레온화에 대응해 갈 계획인 바, 업계에 의하면 각각 탈 프레온 단열재의 개발테마를 신청하고 이에 대해 개발보조금 9,000만엔이 주어지게 된다.

업계측에서 4,500만엔을 거출해 총액 1억 3,500만엔이 개발비로 사용되며, 개발기간은 5년이다.

냉장고 단열재의 발포제로는 특정 프레온인 CFC-11이 사용되고 있으며 연간 3천톤이 소비되고 있는데, 각사는 대체 프레온 HCFC-141b나 HCFC 123으로 교체하는 외에 일부 업체는 진공단열재의 개발과 비프레온 발포제를 사용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지구환경보호면에서 커다란 과제로 되어 있는 특정 프레온의 사용량이 많은 단열재에 대해서는 조속한 대응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태의 공동개발이 추진되게 된 것이다.

각사의 개발을 진공단열재 등의 신 단열재의 개발, 신발포제의 개발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여지며, 동시에 이들 신개발 단열재의 품질 평가 등도 행해질 예정이다.

일본의 셀룰라 전화 가입대수 40만대 돌파

일본의 셀룰라 전화그룹 8개사의 총 가입대수가 7월 현재 집계 시점에서 40만 2,400대로, 40만대를 돌파하였는 바, 이것은 '89년 7월 판서 셀룰라 전화의 셀룰라 폰 서비스 개시

이래 4년만에 달성된 것이다. 각사별로 보면, 관서 셀룰라 3만 6,400대, 토오후꾸 셀룰라 2만 9,000대, 홋카이도 셀룰라 2만 4,700대, 키타리꾸 셀룰라 2만 1,200대, 시코쿠셀룰라 2만 2,200대, 오키나와 셀룰라 5,700대이며, 또한 카폰과 휴대폰의 비율은 ① 카폰 5% ② 겸용 3% ③ 휴대폰 92% 이다.

일본 마쓰시다 전지, 러시아와 동구에서 생산

마쓰시다 전지공업은 러시아, 동구지역에서의 전지생산에 대해 생산품목을 1차 전지만으로 할 것인가, 2차 전지를 포함할 것인가, 또, 네덜란드 필립스사와 합작형태를 취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同社は 건전지의 해외생산을 일찍부터 전개해 왔으며, 최근에는 수요가 확대하고 있는 2차 전지의 해외생산 강화를 추진해 왔는데, 미국에서의 Seal 연추건지 생산, 인도네시아 바탐섬에서의 Nical 축전지의 조립에 이어, 벨기에의 필립스 마쓰시다 전지에서 Ni-Cd 축전지의 조립을 개시하였다.

러시아·동구에서의 전지생산에 대해서는 소련 연방 붕괴전에, 기술·플랜트 공여의 요망을 받고 검토했던 사례가 있으나, 최근 이들 지역에서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생산을 검토하게 된 것이다.

생산품목에 대해서는, 1차전지만의 경우와 2차전지인 Ni-Cd전지, 혹은 새로운 전지인 니켈 수소전지의 동시생산을 검토하고 있으며, 또 유럽지역의 전지사업에서는 관련이 깊은 필립스사와의 합작구상도 있어, 공장입지지역을 포함해 FS(실행가능성 조사)의 단계에 들어가 있음을 밝혔다.

중국의 상반기 경제성장 동향

중국 국가 통계국이 최근 발표한 상반기의 국내 총생산(GDP)은 1조 2,600억 원으로 전

년동기대비 13.9% 증가하였고, 성장의 대반을 점한 공업부문의 생산은 同 25.1%의 증가를 보였다. 국내 총고정자본 형성은 同 61%, 민간 최종 소비지출은 同 24.4%, 수출은 4.4% 수입은 23.3%가 각각 증가하였고, 상반기의 생계비는 전국 평균 전년동기대비 12% 상승하였으며, 주요도시에서의 상승율은 同 약 17% 상승을 나타냈다.

중국기업의 미국 주식시장 상장

중국기업의 뉴욕 주식시장에서 상장을 도모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1호는 승용차 메이커인 브릴리언스 차이나 오토모티브 社가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500만주를 발행하여, 아직 문제는 많다고 하지만 많은 중국기업이 이를 따라 미국에서의 자본조달을 도모하는 길이 열린 것으로 보여진다.

뉴욕 주식시장의 한 관계자는 중국기업의 뉴욕에서의 상장수에 대해 년내에 앞으로 2, 3개사, 금후 2, 3년내에 50개사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조달자금은 금후 2년간 적어도 20억~30억弗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기업이 미국기업에서 상장하는 매력으로서 ① 세계에서 가장 풍요로운 투자가들과 접할 수 있고 ② 홍콩시장의 주가 수익율은 이 11~12배인데 비해 미국시장은 18~19배로 높으며, ③ 외화조달이 가능하고 ④ 조사기관과 미디어 등이 역동하는 미국에서 거래함으로써 얻을수 있는 신망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미국 투자가에 있어서도 중국의 잠재적 성장률은 매력적인 데, 한 소식통에 의하면, 금년 상반기의 광공업생산성은 25% 신장을 보이고 있다.